

오피니언

光日春秋

고원정



휴대전화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컴퓨터도 쓰지 않는 나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원시인'이나 '석기시대 인간'이니 하고 놀리곤 한다.

숨겨진 산행길에서도 누군가와 중얼중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내게는 지금도 코미디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작은 손수 신탑이 되어 있는 것만 같다.

원시인의 변명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전화 줄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나는 오히려 그 쪽이 걱정스럽다.

가 가장 편안하다. 어쭙잖은 아이디어들도 대개 그 안에서 건져내곤 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핸들을 잡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한다. 동의하지만 결단은 쉽지 않다. 사실 나는 대학시절부터 '글쓰기의 기계화'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로서는 거금을 주고 외제 타자기를 구입해서 한글 타자기로 개조해 사용하기까지 했다.

휴대전화 없고, 운전 못하고, 컴퓨터도 쓰지 않는 나의 "3무"행각은 종종 술자리의 안주점이 되곤 한다. 언젠가 그런 자리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시설

문화중심도시 추진주체부터 명확히 하라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해 온 문광부 추진기획단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가 문화중심도시

'문화중심도시시민협의회'를 구성, 본격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진주체 간의 갈등은 조성위의 역할

청와대 관계자는 "조성위와 추진기획단과 관계자는 "조성위와 추진기획단과 관계자는 "조성위와 추진기획단과 관계자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기획단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 된다. 조성위는 설립목적에 따른

노 대통령 탈당 국정운영 차질 없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제출, 공식 탈당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기각 직후인 2004년5월20일 입당한 지 2년 9개월

동료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고 싶었다"며 "단일 대통령제 등 헌법 정치의 구조와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기고

송계축



무심하게 시간은 흘러 희망이 넘치는 봄이 왔건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이 그리 여의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되었고, 독립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백여 년 전 우리 민족은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

기고

윤삼현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은 다양한 사고력을 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단세포적인 인간만을 양산해 낼 수 밖에 없다. 입시 교육에 매달려 파행적으로 치달은 한국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예를 들어 학습자 스스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조직하며 능동적으로 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능력 신장에 힘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3·1정신을 되새기며

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잡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세기 초 우리 민족은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더할 수 없는 시련을 감수해야만 했다.

갑과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에의 열망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펼쳐 일어난 3·1운동의 자주, 자유, 평화정신을 불변의 가치로 승화시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가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소임일 것이다.

창의력 교육이 국가 경쟁력이다

성 신장 활동을 적극 수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창의적 교육은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진정한 주체적 학습자를 기르는데 있어 방향전환의 계기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역이 갈릴수록 인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창의적 인간을 끊임없이 배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창의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디지털 잠금장치 의무화 했으면

얼마 전 새 아파트 이사,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열쇠업자가 찾아와 기존 출입문 잠금장치가 간단하게 열 수 있다면서 너무 허술하니 새 열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파트 단지마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며 디지털 보조키 등을 단다고 생각하면 그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유명 백화점서 산 선물 내용을 바뀌어 배달 돼서야

지난 설 명절에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평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보내 드렸다. 명절연휴가 지나고 한분과 통화하던 중 그분이 받은 물건이 내가 보낸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 너무 바빠서 혼선이 있었다며 직원분들이 모두 머릿속에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물건을 재배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無等鼓

이런 봄, 남보다 먼저 피는 꽃은 대개 노랑다. 영춘화가 그렇고 산수유가 그렇다. 산수유 꽃은 여느 나무들이 아직 싹조차 피우지 않은 이른 봄에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변을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속 같은 풍경의 산수유 마을에도 이른 봄이 담겨 있다. 지리산 자락을 피로 물들였던 이념의 광풍이 이곳에도 몰아쳤던 것이다.

산수유 축제



이런 봄, 남보다 먼저 피는 꽃은 대개 노랑다. 영춘화가 그렇고 산수유가 그렇다. 산수유 꽃은 여느 나무들이 아직 싹조차 피우지 않은 이른 봄에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변을 온통 노랗게 물들인다.

너가 부역혐의로 군경에 끌려가면서 구슬땀 흘려왔다는 '산동애'가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孝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